

남산동리진사효행록이라



[해제]

<남산동리진사효행록>은 필체가 두 번 바뀌었고 가사 작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본문이 끊어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뒷부분에 일본어 독음으로 되어 있는 글이 있으며 어머님전상서와 같은 편지글도 수록되어 있다.

[원문]

초설잇씨 잔치파한후의 잇튼날 선관이
 빙모양위와 두동서며 노복을 하직하고
 독검니 허물을 두고가며왈
 이거시 비록 흥상후나 집의두면
 만사가 다유익 할거시니 두옵소서하고
 소제를 도라보며왈 나난불연 천상으로
 올라갈 거시니 그딤난 이곳부모임을
 되시고 평안이 지니소서하고 후직후되
 소제디왈 여필종부라 후여시니 닉엇지
 상군을 이별하고 살이요후디 선관이
 마지못후야 소제로 더부려 판서양위게
 직박하고 이별하며 써나난정이 익원후야
 초마이별니 춤혹하더니 천기하평후미 오식구름니
 이러나며 문득간디 업거날 판서양위
 할일업서 체레후며 영화로 지닌더라
 연광이 구십의 기세하고 천상으로
 올라가니 귀연의 신선되고 독검의난
 아달삼형제을 두고 영화로 지닌더라
 적막촉하의 형준은 형자된지 만지기구구
 무럼무식 후오니다

남산동리진사효행록이라
 부주드러온것살만씩에서공귀렴한시리
 쌍액인네귀베서공지렴한시리빙깃덕지
 에서공지렴한시리명실룡지렴한시리뿔할민
 네귀에서공지렴한시리헤장이아지미가공지렴한
 시리빅산할미가공지렴한시리일싼씩에서멩
 히한째횡잔네지에서멩티한째죽싸이구장
 네귀에서멩히한째상동이씩네기에세멩티열
 마리구름달이씩에서쑤부열모빙엔아지미네귀
 에서일곰모버맘씩에서짐치항그럭월빛
 난미셔라
 덕에서항그럭디온씩에서항그럭소구이씩

주야로심각난능의동심
에서항그럭
담뉘쳐 장진설화시주이
우지못흐오며그편소식을향
상하여저편우로죽지못하여
주야심각스룩담~마음을향
망하여일권울고숫밭기다정
흔는정찰바다양수의라복들
고혹혹니살거오니그서는우리
형제마음의일반이올닷세보
나혀망수혹잇바리오니무익
낮낯슬곳업습오며연니오나
유슈광절은만인곳업소와혹
도흐온되지주좁신기여상하
옴고속속하소초마야정정오며
어서조흔세월이두고여가고
옥니외흔흔질가는세월당하
면만스가퇴평할거시네우리일신
형제전상의죄가지중하여여
조되야심각하면솔소리분분
하오면시방세상은거러왕닉
하여도숨이안이인정월의오며
우리중행제만나보기고을디디
바라난나라유성성하오신놀좀
게서여여저력손접든안이시
고소석지공등절계유명케하오신
소장양외분게옵서체후안영
하옵시그요즈남청무신씩각뇌
외직동자아시돌다리시고다스쿨
물중안영들하오시고그밭
디소흙저리이란하오메이곳
형은옹후탈은업소나도로심
쥬야로
고고고구신민노새시
이지一와릭룩와고고구마신민와다가이
니주세이뭇대군고구니호샌
니二와릭룩고고고구신민와다가이니
신은이교료구시단계스오가

다구선

상드와릭고고구신민와닌구단

힌지가록오야시나이뫼대

고도오센요센

바라나이다

귀녕하셔뵈옵기를바라시중괴운마안하시압

사제새각하심이일반일듯하외다슈이

대하오면형님새기각이긴절하오니형님췌서도응당

안강하시고여려남매무고하니복향이로소이다

뫼지아니하시고복모부리압지뫼한이다사제넌양당괴력

춘일화창하온대서봉제절이안령하시며사라에서도

흘르는누물능히금제치뫼하것나니다

한번출가하신후로사모하는마음간절하야

형님의애정을바더가머세원을보내다가

형췌절상시일시를볼러함이업시

알게하시업소서

오니회폐에하서나곳뫼치시와위선아흠

하압나니다부슬자뫼여가업사와이만알외

서여러형제와질거웁엇기를천만복만

하시는배아이온이가어서바비가서양당슬하에

하오는서신이잇서야되는거슨일직이미하촉

에근행하웁는친정부모계웁서시가구고께총송

생각이일시를보내기가삼추갓슴니다친가

조금도다름이업사오나부모형제보고시뫼

미자뫼하오니용남하는모양이집에잇슴과

행이압고구고의자애하심과형제간우애하오

안하기고희동생여러형제태평들하오니만

에부리압지뫼하오니다녀식은존당테후일

업을열심하웁는지업다러사모하며하정

압고아바님제절안영하시압고동생은학

이화창하온대 어머니기테후만안하◆

누가잇서알것삼나니가업다러살피웁건대◆

에간절하와잡잡한눈물이뫼기술적시는줄

압고이때를당하오매향뫼하웁는회도하저

어머니슬하를떠난지가뫼서초동을다지나

어머니전상서

[현대역]

차설(且說) 이때 잔치 파한 후에 이튿날 선관이
빙모(聘母) 양위(兩位)와 두 동서며 노복을 하직하고
두꺼비 허물을 두고 가며 왈
이것이 비록 험상(險狀)하나 집에 두면
만사(萬事)가 다 유익할 것이니 두옵소서 하고
소저(小姐)를 돌아보며 왈 나는 불원(不遠) 천상(天上)으로
올라갈 것이니 그대는 이 곳 부모님을
모시고 평안이 지내소서 하고 하직하되
소저 대답하며 왈 여필종부(女必從夫)⁹⁴라 하였으니 내 어찌
상군을 이별하고 살리오 하는데 선관이
마지못하여 소저와 더불어 판서 양위께
재배하고 이별하며 떠나는 정이 애원하여
차마 이별이 참혹하더니 천기(天氣) 화평함에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문득 간 데 없거늘 판서 양위
할일 없어 체례(體禮)하며 영화로이 지내더라
연광(年光)이 구십(九十)에 기세(棄世)⁹⁵하고 천상(天上)으로
올라가니 기연(奇緣)의 신선(神仙)되고 두꺼비는
아들 삼형제를 두고 영화로이 지내더라
적막(寂寞) 촉하(燭下)의 형준은 형자되지만 지기구구
무념무색 하오이다

[각주]

94) 여필종부(女必從夫) :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함.

95) 기세(棄世) : 세상을 버린다는 뜻으로, 웃어른이 돌아가심을 뜻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